

언제 고향에 가 볼까?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민수기 35:16~28]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고향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명절마다 고향을 찾아가는 노력과 갈망이 참 큼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고생을 해도 고향을 찾아 갈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많이 줄었겠지만 북한에 고향을 두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다들 연세가 많아져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대단한 것 같아요.

속초쯤인가요? ‘아바이 마을’ 있다는 것 아시죠? 젊은 사람들에게 아바이 마을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 맛있는 것 많이 있다, 구경할 것 많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25 전쟁 후에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면 빨리 올라갈 거라고 휴전선 가까운 곳에 모여서 살게 된 마을이 아바이 마을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를 아바이라고 부르니 그 마을 이름이 아바이가 된 겁니다. 북한 땅에서 땅도 없이 내려왔던 사람들이니까 좋은 곳에 살았겠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모여서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나고 또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 분들은 통일이 돼야 고향에 수 있을 텐데...

‘나는 언제쯤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텐데 설을 맞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문에 그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고향에 가지 못한 채 도피성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죄수가 있어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제사장이 죽는 길 밖에 없어요.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제도를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아는데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 도피성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고대에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다 있어요. 성스러운 곳이어서 죄수들이 거기에 도망을 가면 절대로 잡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에 이런 지역을 소도라고 불렀죠. 그러니 성경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은 많이 달라요.

얼마 전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이상하답니다. ‘교회 20~30년 다니면 성경에 도통한 것 아니에요?’ 라고 묻길래 제가 답을 해 줬습니다. 미국에서 20~30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미국에서 20~30년 살았는데 왜 영어를 못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살았거든요.

미국이라도 한국 사람만 모여 사는 데에서는 영어 몰라도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어 전혀 못해요.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결정적인 것을 말 할 때는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영어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우리가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도 성경을 잘 모르는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도피성이나 다른 나라에서 성스러운 장소라고 불리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성경을 다시 봐야 합니다.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죄인들이 도망쳐서 들어가 버리면 잡아낼 수 없는 그런 성스러운 곳은 없습니다. 본문의 도피성은 장소 자체가 성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제단이죠. 만약 어떤 죄인이 도망을 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면 살아날까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 때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죄인이 내 제단의 뿔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죄인이 도피할 곳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에게 반역한 아도니야가 거기서 도망간 겁니다. 못 잡아내나요? 아니 오! 바로잡혀 나옵니다. 성전조차도 죄인이 들어가도 함부로 잡아내지 못하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성전도 그런 곳이 아니라면 도피성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도피성은 신성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고의로 쳐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도망가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직 고의성이 없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피했을 때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살인 이외에 반역을 일으켰거나 큰 강도짓을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대로 잡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도피성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나라의 거룩한 장소, 성스러운 곳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나라에서 그런 곳은 한 곳 정도만 있는데 이스라엘은 도피성을 최소한도 6군데를 만들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언제든지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도록 만드셨으니깐 이런 제도는 어떤 나라에도 없는 묘한 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살인자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이런 자는 용서 받을 수 없어요. 본문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가 죽입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자동으로 죽은 사람의 피를 보복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죠.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면 반드시 나를 죽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걸 생각하면 함부로 내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으면 형제나 가까운 사람이 원수를 갚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연한데 본문은 이것을 뭐하고 표현하느냐 하면 ‘피를 보복하는 자’란 말을 자주 써요. 우리말의 번역이 보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고열’입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듯하죠? 무른다, 아니면 회복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란 피를 무르거나 피를 회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죽은 자의 원한을 갚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무고하게 죽은 자의 그 피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번역이 보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쌓인 원한을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피를 회복시킨다, 죽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다시 물려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때 그 속에는 꼭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보복’이고 하나는 ‘원상회복’ 즉, 무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사탄에 대한 보복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동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했었는데 이게 깨어진 거죠. 그 모습으로 다시 원상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피를 원상회복한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죽어야 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의미가 되고 거기에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으니깐 죽어야 하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원상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래 있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으니깐 먹고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 살 길 중에 유명한 것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를 그 때 이미 하고 계신 거죠.

따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따 먹었지? 그러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그러시면서 다시 회복되는 방법을 은근슬쩍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은 원상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도피성이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설령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치더라도 도피성에서 재판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도피성이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두 번째는 사람을 죽게 했는데 고의성은 전혀 없어요. 무조건하고 도피성으로 갔습니다. 가서 도피성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도 살인자는 살인자예요. 고의가 아닌데 사람을 죽이게 되면 죄가 있냐요? 없냐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무조건하고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고의는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됐냐? 이런 경우에도 죄는 있습니다. 이런 죄가 '과실치사'쯤 되겠죠. 과실치사도 큰 죄는 큰 죄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이면 죄가 없다? 아닙니다.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죽이려고 한 것 아니야."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잡혀 죽어요.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잡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잡히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라고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 가면 죽습니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살아날 방법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도피성이 원래 요단강을 좌우로 해서 한쪽에 세 개씩 만들어 두셨어요. 이유는 거리를 감안해서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만약에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누군가가 따라 들어오면 도피성에서 막아 줘야 됩니다. 막아 주고 재판을 했는데 고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평생 보호해 주고 먹여 주고 다 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목숨은 건졌어요. 사람을 죽였지만 목숨을 건지고 도피성에서 오래도록 살면 무엇이 제일 힘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결혼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찌겠어요? 도망가야죠. 일단 도망가서 못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면 신부가 도피성으로 찾아와서 거기서 같이 살아주면 좋을 텐데, 그 성 바깥을 못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신부가 찾아와서 같이 살아줄는지 모르겠네요.

부모를 다시 못 만나요. 친척 형제들 다 못 만나요. 저는 '마음이 참 아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 관계있으면 용서하세요. 기러기 아빠! 처자식을 먼 곳에 두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죽으면 죽었지 못할 짓인데... 모르겠어요.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다 떼어 놓고 혼자서 도피성에서 살아야 하는 것, 목숨은 건졌지만 정말 기약 없이 거기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옛날 성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일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 밖을 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피성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성 밖을 나왔는데 원한을 표했다고 밖에서 잡아 죽여 버리면 죽인 사람에게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은 도피성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고향도 못 가요. 친구도 못 만나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상상을 한 번 해 보세요. 도저히 내가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데 어느 날 대제사장이 죽었다.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즐거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어른인 저 대제사장께서 돌아가시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보다 더 젊으면? 이걸 희망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대제사장이 사고로 죽어 버렸

어요. 그 때는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여하튼 무슨 사고로 죽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웃어야 하나요? 울어야 하나요? 참 갈등 생길 것 같아요.

오래 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가 좀 특수한 학교였습니다. 그런 학교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그 학교에는 선생님이 한 번 발령 나면 평생토록 안 움직여요. 특수한 학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교생 실습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찻가게 물어 봤어요. 발령 날 가능성은 있나요? 그 친구들 답변이 이래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외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분이 돌아가셔야 내가 집에 돌아가는데... 그런데 어쩌다 돌아가셨어요. 이거 얼마나 기뻐해야 되나요? “야, 집에 갈 수 있다.” 하고 날뛰다 보면 전부 살인자들뿐이에요. 원래 도피성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해서 감동될 것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섞여 살던 살인자들만 기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빨리 표정을 감추어야 할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죽어야만 희망이 있는 직업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병원을 새로 시작했는데 가서 기도합니다. “이 병원 잘 되게 해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고 해야 하는데 병원이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이 병에 많이 걸려야 되잖아요. 장의사에게 가서 사업이 번창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누군가가 죽어야만 일이 제대로 되는 이런 경우는 옆에서 인사하기가 참 민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날 뛰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아할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묘한 제도를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형처럼 만들어 놓은 제도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이러니 이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시나요? 저는 고난주간에 슬퍼하는 사람들이나 너무 엄숙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보고 슬퍼하라고 돌아가신 줄 아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아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 행복하게 잘 살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라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 아닐까요? 그러면 고난주간에 너무 슬퍼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고난, 고난 이러니까 같이 따라서 가긴 갑니다만 제 속마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즐거운 티를 내기는 쉽지 않죠? 정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받으셨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 날뛰던 살인자들이 어느 순간에 ‘어, 이래도 되나?’ 이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두 가지 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 아들은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을에 갔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떨어 먹은 네 놈이 아들이랍시고 그 집에서 살 자격이 어디에 있냐고?” 야단을 치면 그 말이 맞아요. “아,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이랍시고 이 집에서 살 형편이 아니네요.” 하고 짐을 행거서 또 나가요? 나가면 안돼요!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신 못 나가죠.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웃사람들의 비난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서는 입장이 바뀌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전에 다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 준다고 하셨으면서 또 왜 그러세요?”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큰 죄인으로 생각하고 순종해야죠. 돌아온 탕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잘 보여 줍니다.

도피성에서 살고 있는 살인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듯해요. 죽을 사람인데, 우리와 닮았죠? 여기 들어와서 안 죽게 된 거예요. 안 죽고 안 죽는데 도피성에 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이 도피성을 나가면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는 살지만 갇혀서 제약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힘들게 사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참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정말 행복하지 않고 ‘아, 나도 안 믿는 사람처럼 내 맘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예수 믿는 믿는데, 그래서 살게는 됐는데 도피성 안에서 힘들고 어렵게만 사는 이런 사람, 형식적인 신앙, 혹은 의무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기는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도피성의 죄인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몇 단계의 변화가 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단계, 죽음은 면했지만 사는 게 힘든 단계,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자유롭게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뼈딱하게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괴팍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선악과 따 먹고 정녕 죽으리라 하시면서도 죽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죽으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죽으리라고 선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무르려 하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르시는 이야기, 반복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들도 한 번 반복하거나 무르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칩니다. ‘일수불퇴’ 아시죠? 장기나 바둑 두는 사람이 한 번 졌다가 손을 떼면 절대 못 움직여요. 그래서 한 번 졌다가도 손을 떼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일수가 아직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졌다가 손은 안 떼고 짝 밀어서 놓고 그래요. “나, 손 안 뗐다.” 이라고 버티는 거예요. 손 뗐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못 움직여요. 손 뗐다가 다시 만지면 참 나쁜 사람입니다.

놀음판에서도 한 번 졌다가 다시 거뒤틀리는 것은 굉장히 나쁜 버릇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러한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가 거뒤틀리시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고 반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그러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런 것을 찾아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말씀하셨다가 취소하시면 부끄러운 일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자녀처럼 만드시고서는 “이거, 하면 죽어!” 그러셨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죽이려고 애를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것 하고 도피성에 갇혀 사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죽었으니 너 고향에 돌아가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데요? 그것 믿는다는 게 예수님 돌아가신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됐어, 너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아담과 함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고향으로 돌아갈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내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 너 믿을래?”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데려 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본향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진짜 그리워하고 기대해야 될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었으니 머잖아 우리도 그 고향에 도착할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그리워할 때마다,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내 진짜 고향,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